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를 보시고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체육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한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 군인들은 갈매기팀으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은 제비팀으로 경기에 출전하였다.

경기는 배구와 바둑당기기로 승부를 겨루었다.

먼저 배구경기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훈련의 실참마다

대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온 량팀 선수들은 자기 팀의 전술체계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운영하였다.

배구경기는 제비팀의 승리로 끝났다.

이어 바둑당기경기가 진행되었다.

완강한 의지와 인내력으로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치열하게 벌어진 바둑당기경기는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힘과 열정을 불어넣었다.

바둑당기경기에서도 제비팀이 이겼다.

경기에서 우승한 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체육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리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하시며 경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 군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

는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2돐에 즈음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광명성절경축공연이 인민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한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장군님 백마라고 달리신다》, 관현악 《장군님을 우러러 부르

는 노래》, 무반주합창 《훤눈이 내리는데》, 기악3중주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바다의 노래》, 관현악 《매곡과 흥모》, 남성합창 《백두산바람 분다》, 《병사들은 행군해간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남성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로 절정을 이룬 공연은 세상천지가 열백번 뒤집히고 그 어떤 역풍이 불어치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백두산혁명강군의 철석같은 맹세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첩통같이 굳게 뭉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천만군민의 억센 신념과 의지가 장내에 도도히 굽어졌다.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전선가까운 숲속에》, 관현악 《세계명곡무음》을 비롯한 외국곡들도 울렸다.

심장의 피를 세차게 뚫게 하는 공연, 세련되고 참신한 공연,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노래한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숫구치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흥모와 다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불어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1월 2일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1월 2일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공정을 콤퓨터화, 무인화, 무진화, 무균화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와 공장의 로동계급들, 령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힘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짧은 기간에 결사판철하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3개월만에 공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설, 종합조종실, 사랑작업반, 파자작업반, 풍사량, 풍강정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 바쳐오신 백두산전설세위인들의 사랑의 력사가 어려있는 조선인민군 11월 2일공장의 생산공정현대화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인 과업을 주었는데 그것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위대한 대원수님

들의 유훈을 또 하나 관찰할수 있게 된것이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진화, 무균

화 실현되어 식료공장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으며 소음공해를 없애고 배풍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로동자들이 흥겨운 로동생활을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생산공정현대화가 전반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식의 현대화, 당에서 바라는 현대화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인민군대가 이런 공장을 가지고있는것은 자랑이라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진화, 무균

화가 실현되어 식료공장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으며 소음공해를 없애고 배풍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로동자들이 흥겨운 로동생활을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어 오늘과 같은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일군들에게 조건보장은 최고사령관이 전적으로 맡겠으니 생산을 정상화하여 여러 가지 식료품을 군인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공정현대화를 실현하여 최고사령관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공장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마식령스키장에 올라퍼지는 행복의 웃음소리 청소년 학생들의 스키야영 시작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사랑속에 마식령에서 청소년 학생들의 즐거운 스키야영이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천연산악지대에 대중체육관광기지로서 훌륭히 일떠선 마식령스키장에서 청소년 학생들이 스키야영을 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제4소학교의 학생들이 남만저 스키야영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마식령호수에 야영배낭을 꾸린 학생들은 수천만년 잠자던 마식령에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은 감동속에 들었다.

청소년학생들은 스키교원들의 친절한 방조속에 스키

라기훈련에 들어갔다.

평양의 인민야외빙상장과 로라스케트장에서 신바람나게 달리던 솜씨 그대로 스키라기모리를 빨리도 터득한 소학생들, 익숙된 솜씨로 벌써부터 주로를 지쳐 내리며 민첩하게 스키를 타는 대학생들의 담찬 모습으로 하여 스키장은 시간이 갈수록 활력으로 끓어번지

었다.

야영에 참가한 청소년학생들을 위해 성의껏 마련된 음식상은 그들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장가마다에 정다운 불빛이 흘러넘치는 아늑한 숙소에서 청소년학생들은 학과 학습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흥겨운 유희와 오락도 하면서 야영의 밤들을 한껏 즐기였다.

본사기자



최근 북과 남사이에는 고위급접촉이 진행되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적단합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 의지를 확인하고 북과 남사이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도 발표하였다.

북남사이에서 모처럼 마련된 고위급접촉과 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우리 겨레에게 큰 기쁨을 주고있다.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북과 남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부응하여 오늘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에 토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는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이어온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조선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사랑하는 민요 《아리랑》의 선율속에 흘러넘치는 우리 민족 고유의 감정과 정서를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민족처럼 절절하고 진하게 느낄수 없다. 마찬가지로 북과 남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체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동성보다 더 클수는 없다.

우리 민족은 세계의 대부분 지역들이 아직 태고의 원시림속에서 잠자고있을 때 동방에서 처음으로 국가시대, 문명시대를 개척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한 우리 민족은 인류력사의 령봉기로부터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된다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북에 있던 남에 있던 5천여년의 력사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물질문화적 재부마다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슬기와 재능, 민족의 단일성이 그대로 살아숨쉬고있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그가 어디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 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체의 리익, 공동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뭉수 없이 련결되어 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 우리 민족성을 말할수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것은 유구한 민족사에서 겪어 된 일시적 국책에서 비롯된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다.

지금 북남관계 개선을 하는것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요구로 나서고있다. 북남관계의 발전을 떠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북남관계발전이 민족의 자주도 있고 나라의 평화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근 70년간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력사는 북과 남이 대결의 지속으로 얻을것이란 분열의 지속과 전쟁의 참혹한 재난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었다.

공화국이 중대제안에 이어 다시금 공개서한을 남조선에 보내고 북남사이의 줄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남측에 제의했던것은 바로 더 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국로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적 력사에 중지를 찍고 내외의 일치한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실

천적으로 열어나갈 일념에서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후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것은 이미 실천으로 확증되고있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동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특질이다.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은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기를 열어나갈수 있다.

본사기자 최광혁

시 류 음

경 축 의 꽃 바 다 펼 쳤 습 니 다

김 영 너

길림의 2월은 뜨겁습니다

그리움속에 밝아온 광명성절 아침
여기 길림육문중학교
주석님동상앞에 서니
눈앞에 선히 어려웁니다
4년전 8월 이곳에 오시었던
아버이장군님의 모습이

아 산은 산마다 강은 강마다
주석님의 성스러운 항일혁명영적
뜨겁게 전하는 영광의 성지여
백두산 가까이에 사는 무한한 궁지
장군님 오셨던 그때처럼
가슴가득 차오른적 일찌기 없었습
니다

내가 선 바로 이 자리는 아님바라
조국에서 안고오신 꽃바구니
장군님 경건히 주석님께 드리시며
숨없이 동상을 우리르시던 곳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버지장군님
우리 동료들의 가슴에 송고한 사명을
새겨주시며
태양의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생각 많으셨겠습니까
항일빨찌산군복 그대로 입고계시는
주석님께 충정의 꽃 드리시던
장군님 심중에 뚫어온 깊은 생각
이여

백두의 넋을 안고 원수님 더 높이
받들라고
힘을 주고 정과 사랑을 부어주십니
다

동북의 사연많은 항일전장을
그이 마음속으로 다 걸어보시며
주석님 헤쳐오신 피어린 자욱자욱에
삼가 놓아드린 경모의 꽃입니다

백두산하늘아래 사는 궁지를 안고
애국의 한마음 더 붉게 꽃피우렵니다
충정으로 불라고 맹세로 불라는 우리
가슴에
길림의 2월은 아 뜨겁습니다

내 마음 언제나 영광의 그 시각에

있을수 없이라
원수님을 몸가까이 뵈던
뜻깊은 청년대회 기념촬영장에서
재중동포들의 그리움 담아

그이께 꽃다발을 드리던 영광의 그
시각을
이역에서 온 청년대표들이라고

자신의 곁에 불러주신 원수님
지금도 꿈만같은 그날의 그 행운
행운의 그 시간은
짧았던지 길었던지...

먼곳에 사는 자식이어서
제일 가까이에 불러주신 사랑
드린것이 어찌 꽃다발이라고만
하라
그이께 매혹된 넋이었다
스스럼없이 말기는 운명이였다

한품에 안아 부어주신 정

사 랑 의 품

을었습니다
자꾸만 솟구치는 눈물 걸잡지 못했
습니다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모습 TV로 보이며

매일씩 아버지를 잃은 나처럼
부모의 사랑을 잃은 고아들이건만
그들은 고아가 아니였습니다
이 세상 제일이신 아버지를 모신
행복에 겨운 자식들이였습니다

아버지란 부름 부르고싶어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아버지와 함께 손목 잡고 다니는

끝내 눈물을 터치게 한
다심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잊을수
없어

내 마음은 언제나 영광의 그 시각에
광명성절 뜻깊게 경축할수록
더더욱 사무쳐오는 감정의 그 시각
이여

영원토록 그 시각을 소중히 간직
하고

장군님 유훈을 받들어가리라
오직 한분 원수님만 믿고 따르며
충정의 꽃 더 활짝 꽃피워가리라

아이들을 볼 때면
남몰래 눈물흘려온 나의 어린시절

그 시절 아버지 없는 서러움으로
눈물을 많이도 흘려본 나였기에
걱정의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북받치는 감동 그리도 큰것이였습니다

나이는 몇살이냐?
아픈데는 없느냐?
물어주시는 원수님 모습
어쩌면 그리도 다심하십니까
어쩌면 그리도 다자하십니까

《아버지!》
목젯껏 부르며 칠부지 아이들

원수님 품에 와락 달려가 안길 때
내 마음도 걱정의 파도가 되어
원수님 품을 찾아 사품쳐 흘렀습니
다

이역의 하늘에도
그 빛발은 언제나 찬란합니다

정녕 원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있
기에
사회주의 내 조국엔 봄빛이 따스하고

7천만 온 겨레가 운명을 의탁하며
아버이라 부르며 달려가 안기는 품
그 품은 아 그 품은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경 축 의 꽃 바 다 펼 쳤 습 니 다

길림과 심양

단둥과 장춘
우리 동료 사는 곳 그 어디서나
경축의 꽃바다 펼쳤습니
다

광명성 찬란하여 영광떨쳐온
위대한 조국의 년대기들을
뜨거운 가슴속에
언제나 그리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주체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빛을 뿌리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 높은
모습
광명성 그 이름과 더불어 찬연히 빛
납니다

이역에 사는 동포들의 가슴가슴을
신심과 용기로 꿰고 하고
애국의 열정으로 불태워준
아 광명성 그 찬연한 빛발이여

그 빛발 우리르며 달려가 안기고
배푸시는 사랑에 목매어 눈물을 쏟던
감정의 그 나날들을
세월이 흐른다고 어찌 잊을수 있겠
습니까

대를 이어 높이 모신 백두의 천출위인
광명성 그 빛발로 누리며 밝히며
사회주의 내 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주시거
니

광명성 그 빛발 언제나 가슴에 안고
고마운 어머니조국 무궁토록 받들 마음
광명성절 이 아침
더욱 뜨겁습니다

길림과 심양
단둥과 장춘
충정으로 불라는 동포들의 마음
경축의 꽃바다로 펼쳤습니
다
(필자는 재중조선인정년연합회
위원장임)

2 월 의 봄 명 절 에 더 욱 뜨 거 워 진 마 음

은 겨레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
의 정을 안고 광명성절을 성
대히 경축하였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준
엄한 력사의 폭풍우속에서
조국과 겨레를 위해 온갖 시
련과 고생을 다 겪으시며 정
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강
력으로 전인미답의 길을 헤
쳐오신 위대한 인간,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그이의 생애는 한몸이 그
대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민족의 존엄과 행복,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모든것
을 장그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아버지의
고귀한 한생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탄생
72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제
18차 김정일화축전, 백두산
일명절의 대회, 제 23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계
취거축전을 비롯하여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다채
로운 경축행사들은 그이의
사상과 업적을 영원불멸하며
절세위인에 대한 경례와 진
보적인류의 그리움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
해진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대양, 아버지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위업과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갈 애
국의 마음을 가다듬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민족이
당하는 분별의 고통과 불행
을 두고 심려하시며 하루빨
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
게 물려주도록 하기 위해 온
만수대 창작 사에 모신

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
신 조국통일의 구성이다.
필생의 사명이고 최대의 애
국인 조국통일을 위해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열
렬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대대결과 자주통일실
현으로 이끄시어 우리 민족
끼리의 6.15통일시대를 열어
놓으신 장군님이다.
만수대언덕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의 동상을 찾아 송고한 경
모의 표시한 조국통일수상자
오영군의 딸인 오혜정은
장군님께서 민족을 위해 쌓
으신 업적을 끝이 없다고 하
면서 그이께서는 민족의 통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순직한 사람들을 통
일애국렬사로 높이 내세워주
신 생의 사명이고 아버이
이시라고 격정에 겨워 말하
였다.

장군님의 한평생은 일찌기
조선을 빛내일 원대한 뜻을
지니시고 애국의 길에 나서
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민의 리상과 행
복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하루
를 열흘, 백달맛잡이로 삼고
자신의 한몸을 초발처럼 태
우신 애민헌신의 한생이다.
우리가 당대에는 그 덕을 보
지 못한다고 하여도 조국과
후대들을 위하여 뚜렷한 자
욱을 남겨야 한다는 투철한
애국애족애민의 희생적인 헌
신으로 이 땅우에 강위력한
정치군사적, 물질경제적로
대를 마련해놓으신 장군님
이시다.
만수대 창작 사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기마동상을 찾은 김일성상
계판인이며 로력영웅인 오
영재 선생의 아들 오설악
은 위대한 장군님은 민족
의 운명과 존엄을 지켜주시
고 강성국가의 미래를 펼쳐
주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
시고 민족의 태양이시라고
하였다. 그는 아버지라 사람
들속에서 널리 애창되는 《조
선의 힘》, 《흰눈덮인 고향
집》, 《장군님식솔》과 같
은 노래를 지을수 있는것은
그이의 위인상에 매혹된 넋
의 분출이었다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군님의 위대성
을 칭송하는 인민들의 마음
담아 문필활동에 자신의 창
작적열정과 지혜를 다 바친
결심을 피력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그이의 위업
을 받들어나가는 각계층
인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불같은 애국충정은 김정일화
축전장에도 차남했다. 재우
즈베끼스판 신 이리나동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국에 처음 왔
다. 50여년세월 이역땅에서
마음속에 그려본 조국을 방
문한 소감을 어떻게 표현해
야 할지 모르겠다.

더구나 김정일화를 보면
서 김정일령도자의 위인상
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분께서 얼마나 출중한분
이시면 외국의 원예업자가 자
기가 배설을 들여 육종한 새
품종의 화초에 그분의 존함
을 모서 세상에 내놓았겠
가. 김정일화는 세계적평화
로 꽃의 왕이다.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진귀한 꽃들을 놓

고 하는 화초전시회나 박람
회가 많지만 규모나 형식
에서 김정일화처럼 한가지 꽃
을 가지고 열려 있는 꽃축전
은 없다. 조국을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인것이다. 전장
을 돌아보는 남부로스 참관
자들의 얼굴에서 나는 령도자
를 모시고 받드는 조국동포들
의 신뢰와 경모의 정을 한껏
느낄수 있었다. 나도 그 수결
에 호흡을 맞춰 우리 동포들
의 서리꽃애술단활동을 힘차
게 벌려 동포사회의 화복과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의 넋을
대대손손 이어가도록 하는데
미력하게나마 이바지할 마음
을 굳게 가지게 됐다.》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
하면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모시며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무
상의 행운을 마음속에 소중
히 간직하고 그이의 령도파
라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을 위해 애국충정을 다할 열
의에 넘쳐있었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
에서 장군님의 유훈을 한결
음의 양보도 없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철저히 구현하
며 그이의 업적을 끝없이 빛
내어나가도록 하시려는것은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
이다. 장군님께서 뿌려놓으
신 만복의 씨앗들을 알찬
열매로 무르익도록 하시
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에 의해 전례
없는 건설의 번영기가 펼쳐
지고 마식령을 비롯한 온 나
라 곳곳에 조국번영, 인민사

랑의 거창한 창조물들이 우
후추순처럼 일떠서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새
로운 기적이 려이어 창조되고
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
국에 체류하면서 문수물들
이장과 옥류아동병원을 돌
아본 김 스베들라나 재우즈
베끼스판동포는 정말 회한하
다. 규모도 크고 형식도 높
라를 정도로, 근로하는 사람
들을 위해 그렇게 훌륭한 물
놀이장을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하도록 하셨다는 그분
의 인민사랑에 감동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면서는 발걸음을 땀
수 없었다. 한적한것의 모든
의료설비들과 기구들을 최상
의 수준으로 갖추고 아이들
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는 병
원의 의료상해력은 내가 처
음보는 꿈같은 일이었다. 민
족의 미래를 위해 기울이시
는 원수님의 후대사랑과 조
국의 인민적이며 대중적인
국가적시책과 배려에서 나
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매우로 실
감하게 됐다라고 자신의 심정
을 터놓았다.

은 민족이 뜻깊게 경축한
광명성절은 위대한 장군님을
세월의 끝까지 천세만세 높
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통일되
고 번영하는 강성국가건설
의 그날을 앞당겨오려는 민
족의 다함없는 경모와 절대
적인 신뢰심이 뜨겁게 굽이
쳐흐른 인민최대의 명절, 영
원한 2월의 봄명절이라는것
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리 설

눈 보 라 강 행 군 길 은 말 한 나

이해의 2월은 레
에 없이 푸근하다.

대지를 에이던 차
더찬 눈보라가 이제
는 사라지고 강산
은 눈석이 시작되
는 가을이다. 부드럽고
살진 흙속에 봄
의 작은 일새들이
머리를 쳐들 준비를
한다. 봄이 태동하
고있는것이다.

하긴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
할 추억으로 소중
히 간직된 눈보라
가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평생 걷고 걸으
신 눈보라강행군길
에 대한 생각이다.

아마도 장군님처럼
인생의 시작도 끝
도 눈보라속에서 보
내신 위인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그이께서는 백두
산의 눈보라를 추부
의 꽃보라로 맞으
며 탄생하시었고 그
설한풍속에서 첫걸
음을마를 제시했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내리신
그날로부터 장군님께서 굴
합없이 헤쳐신것도 눈보라
치는 전진길이었고 그이의
야전차자욱이 려려히 새겨
진 곳도 철령과 오성산, 강
계와 함간의 얼음진 험한 길
들이었다.

자신께서는 눈덮인 백두산
에서 태어나 자라서 그런지
겨울이 마음에 든다고, 사람
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겠
지만 자신께서는 겨울이 좋

다고 하시며 멀고 험한 눈보
라강행군길을 웃으며 헤쳐가
신 장군님이다.

그이께서 한평생 헤치신
눈보라강행군길은 조국과 인
민을 위한 끝없는 헌신의 길
이었다.

인제인가 장군님께서
추위속에 어느 한 인민군부
대를 찾으신적이 있었다.
그이를 맞이하게 된 군인
들은 대오를 짓고 정렬하였
다.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차
가 눈서리를 한가득 뒤집어
쓴채 나타나자 군부대지휘관
은 승용차로 다가가 문을 열
려고 하였다. 그런데 웬일인
지 분이 열리지 않았다. 열
마후에 군인들은 맹판 강추
위에 문이 열려붙어 움쩍 안
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장군님의 눈보라강행군길
에 대해 전하는 한편의 일
화이다.
흰눈이 내릴 때마다 그이
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온
나라 인민이 장군님 찬결
길지 마시라라는 노래를 마
음속으로 불렀지만 그이께서
는 인민을 따뜻한 아래목에
안아주시고 한생토록 눈보라
를 맞으시며 현지도의 길
에 계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였던 주체100(2011)년 12월
8일 장군님께서 려차를 타
시고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
지도의 길에 오르신것이다.

그날 길에는 찬바람 돌아
치는 눈발속을 뚫고 함흥역
에 멈춰섰다. 새벽부터 함경
남도지방에는 수십cm에 달하
는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
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바람
이 세차게 불었다.

소리없이 걸어가는 그날밤
장군님께서 함흥시민들의
단잠을 깨울래 려차에서
한밤을 지새우시고 이튿날
시인의 여러 풍자, 기업소들
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꽃마
다에서 기록된 성과를 두고 못
내 만족해하시며 노동자들
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
고 떠나실 때에는 매년에 다
시 오겠다는 약속도 남기시
였다.
겉쌍인 정신육체적과로
로 몹시 불편하신 몸이여
좀 쉬시기를 아뢰이는 일군
들에게 난 아직 가야 할 곳이
많다고, 내가 가야 온 나라에
승리의 불꽃이 타번진다고 하
시며 또다시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장군님이다.

이렇게 이어진 그이의 현
지도길이었었고 한순간도 멈
춤없이 이어진 눈보라강행군
길이었다.
실로 장군님의 한평생은
봄을 불러 태동하는 눈보라
처럼 이 땅에 밝아올 강성번
영의 봄을 위하여 불꽃이 사
신 열렬한 애국자의 고귀한
한생이었고 자욱자욱 조국과
자신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걸고걸으신 위대한 아버지의
고결한 한생이었다.

그이의 눈보라강행군길은
말한다.

봄이 오면 자연의 눈은
녹아 없어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국헌신으로 헤
쳐가신 눈보라는 세월이 흐
를수록 그이의 불멸의 업적
을 길이 전하며 인민의 마
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
이라고.

본사기자 김강철

《자 애 로 운 그 모 습 이 더 욱 그 립 습 니 다 ! 》

제 18 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본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반향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
절을 맞으며 제18차 김정일화
축전이 14일부터 20일까지 대
동강반에 자리잡은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
었다.

아래에 축전장을 돌아본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반
향을 소개한다.

《김정일화는 인류세계의
인민들 마음속에 만발하는
꽃입니다.

은 나라 인민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흠모
하는 불같은 정열이며 용광
로처럼 솟아나는 불꽃과 같
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도
조국인민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조국부강건설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적은 힘
이나마 보태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김정일화는 온 세상에 만
발할것입니다!》(리영호 단
둥시 성민무역유한공사 총
사장)

《축전에 참가유한 할수록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더 그림습니다. 장군님을 그
리는 마음을 힘으로 바꾸어
김정은원수님을 끝까지 따
르며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
들이 조국의 강성대국건설에
모든 힘을 이바지하도록 하
겠습니다.》(최룡호 연변화
과학기술대학 부총장 겸 평양
과학기술대학 부총장)

《나와 나의 가족은 오늘
주조 무관단성원들과 함께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였
습니다.
태양절에 열리는 김일성화

축전, 광명성절에 진행되는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을 때
마다 나는 위대한 대원수님
들에 대한 조선군대와 인민
의 절절한 그리움과 그분들
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모습을 세삼
스럽게 느끼곤 합니다. 나는
조선군대와 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하산 테자 허씨이니 주조
무관단 단장 이란이슬람공화
국대사관 부관)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인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그리워
합니다.》(류홍재 주조 중화
인민공화국 대사)

본사기자



제 18 차 김정일 화 축 전 장 을 돌 아 보 는 해 외 동 포 들

이역땅에 흠이친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경모의 정 (1)

통일신보편집국은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중국 심양과 연결에서 진행된 재중동포들의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취재하였다.

연길땅에 울려 퍼진 위인칭송의 목소리들

중국의 연길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연길독란》이다.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자체의 힘으로 무장을 해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연길지대의 반일민중유격대원들이 만드 작란벽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녹아나고 뉘을 잃었는지 제물들기리 이 작란을 《연길독란》이라고 이름까지 지어부르면서 공포에 떨었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항일혁명투쟁업적이 력력히 깃들어있는 이 력사의 땅에서 오 늘은 재중동포들이 빨치산의 아들인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을 뜻깊게 경축한다는 소식에 집한 우리는 흥분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경축행사가 진행될 연길시의 아리랑극장으로 향하였다.

극장은 광명성절경축행사 준비로 흥성이었다.

광명성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시회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길선 재중조선인총련

합회 신진국 부원과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일군들의 모습이 눈에 띄우는가 하면 극장의 조명과 무대장치, 특음설비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느라 바빠 움직이는 차상부 부의장과 최수봉부의장의 모습도 보였다.

그런가하면 무대우에서는 재중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의 광명성절경축공연을 위한 연습이 한창이었다.

우리는 광명성절경축행사준비에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백두산절세위인에 대한 재중동포들의 경모의 정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느낄수 있었다.

12일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 가 아리랑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중앙보고대회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지구협회 대표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대표들, 연길시에 사는 동포 1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김광훈 심양주재 우

리 나라 총평사와 지연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외사관공실 부주임, 박서영처장, 리영학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출입경관리국 국장, 조영길 연길시인민정부 부시장 등 중국의 여러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중앙보고대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애국의 주악으로 시작된 중앙보고대회에서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조국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한다고 하면서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한결같은 애국충정의 마음을 담아 필승의 선군보건을 안겨주시고 무한한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담보하는 혁명의 만년초석을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김정은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영성을 삼가 기원하였다.

그는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역땅에 살고있는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않으시고 따듯이 손잡아 애국애족의 한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고 하면서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 뜨거운 사랑을 부여하신 장군님의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겨레모두의 심장속에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으며 펼쳐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불멸의 업적은 선군으로 강위력한 주체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모신것은 우리 민족이 맞이한 대행운이고 최상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내 조국의 역센 존엄과 기상을 하늘끝에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달게 하여주시고 천만군민을 비약의 폭풍으로 이끌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개화기를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정치, 인민사랑의 정치는 온 민족과 세계를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강성부흥할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게 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오로지 백두의 위대한 혈통이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우러러 따르는 주체의 해

외동포애국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감에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겨신 20돛이 되는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전진적투쟁의 앞장에 설 결의를 표명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중앙보고대회에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중앙보고대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조선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장재도방어

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었다》를 감상하였다.

이어 재중조선예술인들의 광명성절경축공연을 진행되었다.

출연자들은 《2월의 원무곡》, 《축배를 들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조국》, 《애곡》, 《불타는 소원》,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등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노래들을 잘 불러 관객들의 절찬을 받았다.

중앙보고대회에 앞서 아리랑극장의 중앙홀에서는 《광명성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과 도서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새기었다.

참으로 이번 광명성절경축행사를 통하여 재중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참다운 애국의 한길로 변함없이 걸어갈 굳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김화명



↑ 재중조선예술인들의 광명성절경축공연이 진행되었다. ← 《광명성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시회》 진행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우리 통일신보 취재단이 김경수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중국의 심양시에 자리잡고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에 도착한것은 지난 10일 아침이었다.

광명성절경축행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고있던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반갑게 맞아주며 이제 친충하게 될 회의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주석단 정면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고 아래에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보고회》라고 씌여진 글이 나 붙어있는 회의장은 각지에서 모여온 동포들로 흥성이었다.

최수봉부의장이 조국에서 기자들이 왔다고 소개하자 많은 동포들이 저저마다 우리의 손목을 부여잡고 조국의 동포들과 광명성절경축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고,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존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뵙는 심정으로 여기에 왔다고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속에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보고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한 사랑과 정을 부여주시며 참다운 애국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이 못건디게 그

리위서인이 행사는 끝났지만 많은 동포들이 선뜻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우리와 만난 황영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보고에서도 언명하였지만 우리 장군님은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모든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겸비하신 천출명장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그 업적이 하도 위대하기어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재중동포들도 장군님 탄생하신 2월의 명절을 이렇듯 민족최대의 정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는것입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중국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시는 그때면 매일 매 시각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수첩에 하나하나 기록하며 마음을 장군님결로 달리었다는 김길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 부원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격동적이었던가.

《우리 장군님을 중국의 령도집단이 모두 떨쳐나 최대의 국민으로 맞이하는 광경을 보면서 장군님이시야말로 온 세계가 격찬하고 흠모하여 마지막을 걸출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저는 페부로 절감하였습니다.》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시고 사는 조선인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났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마음이 더욱 든든하다며 동주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 부국장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재중총련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것입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의 정에 북받쳐있는 동포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안은 우리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동포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눈 후 다음취재를 위해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공예품에 깃든 뜨거운 지성

민족최대의 명절인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진귀한 공예품을 마련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선물로 올렸습니다.

우리와 만난 한길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장은 선물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최근에 조국에서 일어나고있는 눈부신 기적과 변혁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이치 놀랐습니다. 남들같으면 몇십년도 더 걸렸을 거창한 창조물들을 단 몇달사이에 척척 일떠세우는 조국의 이 거대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하고도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지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우리 민족은 위인복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또한 절세위인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의 마음을 담아 《모란사과꽃병》을 정히 마련하여 원수님께 삼가 선물로 올리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모란사과꽃병》은 중국의 하문우필드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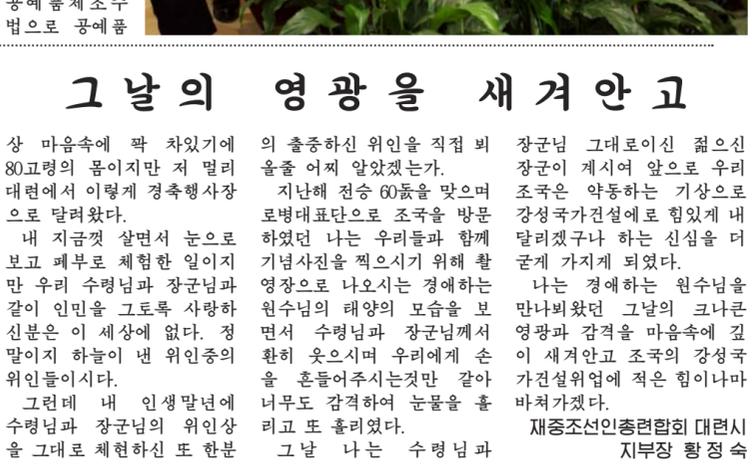
중국 하문우필드회사는 국가문화산업시범기업이고 중국국립미술대학의 국가력도자들과 외국인사들의 선물들을 특별제작하는 회사이다. 우필드회사는 300년의 력사를 가진 전통적인 공예품제조업체로 공예품

들을 생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공예품을 사과처럼 둥글게 형성한것은 평화를, 꽃병에 새긴 모란꽃은 부귀영

화를 상징한것으로서 선물 《모란사과꽃병》은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러 불멸불후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그날의 영광을 새겨안고

상 마음속에 짝 차있기에 80리명의 몸이지만 저 멀리 대련에서 이렇게 경축행사장으로 달려왔다.

내 지금껏 살면서 눈으로 보고 페부로 체험한 일지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과 같이 인민을 그토록 사랑하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 정말이치 하하하 내 위인중의 위인들이시다.

그런데 내 인생말년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인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또 한번

의 출중하신 위인을 직접 비울수 없게 앞섰는가.

지난해 전승 60돛을 맞으며 로병대표단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나는 우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해 촬영장으로 나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보면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말하듯 하하하 내 위인중의 위인들이시다.

그런데 내 인생말년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인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또 한번

장군님 그대로이신 젊으신 장군이 계시어 앞으로 우리 조국은 약동하는 기상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내달리겠구나 하는 신심을 더 굳게 가지게 되었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었던 그날의 크나큰 영광과 감격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안고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위업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련시 지부장 황정숙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보고회장

한겨울이라 밖의 날씨는 쌀쌀하였지만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평양에육원을 찾은 우리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하였다. 정문에 들어서서 《세상에 부럽없어라》,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글자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추운 날씨에 찾아오시어 따뜻한 사랑을 부여주신 아버지원수님을 못 잊어하는 원아들의 마음이런듯 게시판에는 《아버지원수님 기별도 없이 이리저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행복넘친 원아들의 보금자리 더욱더 포근하고 따뜻해졌어요》라는 글들이 띄여져있었다. 우리를 맞이한 최송환원장은 《자나깨나 뵈고싶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에육원에 오셨을 때 꼭 꿈

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라고 말하며 2층 유희실로 이끌었다. 영광의 그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아버지!》하며 달려와 안기는 원아들을 한눈에 안아주시며 부모 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방들과 창고, 리발실, 놀이장들을 거쳐 원아들의 점심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에도 둘러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을 한눈에 잘 먹이는가, 물고기와 고기는 어떻게 가공하

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시면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과 육원을 새로 마련해주실것다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이 생생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러움것이지 마

얼마전 우리가 평양시 육아원을 찾았을 때 그곳 종업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저마다 흥분

수필
현실로 된 꿈
이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게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오셨다. 환상을 리치는바람에 모두가 기쁨에 겨워 밖으로 뛰어나가려는데 전날 밤에 있었던 꿈이야기를 했다는것을 알고는 모두들 얼

복 받은 원아들



어 먹이는가 등을 세심히 알아보시다가 주신 사랑이 적어온 아이들에게 매일 물고기 300g씩 먹여야 한다고, 원아들에게 고기, 물고기는 물론 영양가 높은 과일도 정상적으로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는 우리의 귀청에 푸짐한 식탁과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 있고 이 나라의 지맥이 뻗어 내린 조종의 산 백두산!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어렸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래의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백두산을 오늘 온 겨레의 마음이 달려오는 민족의 성산으로 빛내고있다.

백두산을 안고 사는 사람들
허거나 불타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백두산천지종합관리단원들의 투쟁모습이 비쳐졌다. 언제 보아도 힘이 솟는 백두산, 겨레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백두산을 빛내이는 길에 한걸음 바쳐가는 탐험대원들과 뜻도 절음도 합

일 수 많이 찾아하였다. 얼마전 선생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를 두고 같이 전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이 땅의 평범한 의학자가 정에 훌륭한 가정이라는 값 높은 평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상최대의 축복을 안겨주신 경에하는 원수님.

평양역이 개선된다
* 철도성 건설감독국장 김선일과의 대담 *

기자: 올해에 평양역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싶다. 김선일: 사실이다. 이제 얼마 안있어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기자: 평양역의 개선현대화는 의의가 큰 사업이라고 본다. 김선일: 그렇다. 평양역은 나라의 관문이고 얼굴이나 같다. 때문에 평양역을 개선하는 사업은 의의가 크다고 볼수 있다.

그도 그렇것이 지난 18년간 심영률선생과 그의 가족들이 백두산에 오른 회수는 30차, 백두산을 찾아 걸은 길은 연 12만여리에 달한다. 이 나날 685종에 수만여점의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백두산천지종합관리단원들에게 안겨주어 백두산의 자연비밀을 밝혀내어 그 위용을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한 이들이다.

이렇게 되어 1996년 12월 유치원어린이로부터 70고령의 로인에 이르기까지 수십명의 달하는 선생의 가족일행이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백두산의 겨울은 상상했던것보다 엄중했다. 아름드리나무 무도 순간에 뿌리째 날러보낼듯 한 세찬 바람, 온몸을 얼구는 맹판 날씨, 진눈깨비에 젖은 옷은 어느새 찻땀만 되었는데 이들은 끝끝내 백두산정에 올랐다.

백두산을 안고 산 그 나날 이들의 애국의 마음은 또 얼마나 커만 갔던가. 최근에만도 심영률선생은 단나무의 약리작용을 밝혀낸 데 이어 단나무열매주사약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립종의 시각 자기 마음까지 합쳐 백두산을 찾아가달라고 부탁한 안해 리옥렬녀성 역시 피부부문의 일군으로 사업하는 나날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좋은

기자: 개건사업이 진행되면 평양역의 모습이 새롭게 달라질것이라고 본다. 김선일: 평양역개건사업은 역사건물들을 높이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내외부를 일신시키며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는 원칙에서 진행하게 된다. 기자: 그에 대해 좀 더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새로 개건되는 평양역의 모습이 기대된다. 김선일: 물론이다. 평양역이 현대적으로 개건되면 손님들에 대한 봉사능력이 높아지고 역관리운영의 현대화가 실현되어 인민들에게 더 좋은 리형조건을 보장해주게 된다. 전기, 체신, 급배수조건이 지금보다 매우 유리해지므로 역관리운영에도 편리하다. 우리 철도성에서는 평양역 개건사업뿐아니라 백수십여개에 달하는 지방역들도 매지탈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개건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새로 개건되는 평양역의 모습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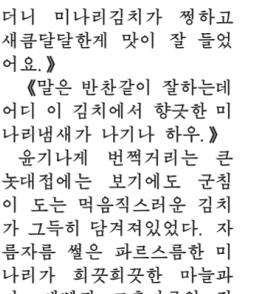
사화
《김치맛 참 좋구만!》 (1)
옛날 밤같이 부르는데 마을에 밤상에 마주앉을적마다 눈꼬리를 잔뜩 치세우고 안해에게 눈을 흘기며 음식 타발을 심하게 하는 최평감이

더니 미나리김치가 평하고 새콤달달하게 맛이 잘 들었어. 《말은 반찬같이 잘하는데 어디 이 김치에서 향긋한 미나리냄새가 나구나 하우.》 윤기나게 뻗어거리는 큰 늦대접에는 보기에도 군침이 도는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그득히 담겨져있었다. 자를자를 썰은 파르스름한 미나리가 회꽃회꽃한 마늘과 파, 새빨간 고추가루와 잘 어울려져 눈맛을 담구었다. 최평감은 김치그릇을 보고 군침을 꿀꺽 삼키면서도 저가락을 들어 그릇에 담그더니 휘휘 저어냈다. 그러자 밧그레한 김치물이 그릇에서 넘쳐나 상우로 흘러내렸다. 매식때마다 념불의우듯 음식타발을 하며 자기 속을 태울대로 태우는 평감을 원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리씨의 눈가에는 맑은 물방울이 축축히 고여올랐다. 그의 눈앞에는 밤금전 말머리에서 새삼을 들며 자기 집 미나리김치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던 이웃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미나리김치를 맛

있건만 평감의 김치타발장은 나날이 더욱 심해졌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어느 가을날이었다. 들판에는 봄내 여름내 품들여가꾼 곡식들이 어떻게 무르익어 설레이고 산에는 산마타 붉은 단풍이 들어 가을풍치를 한껏 떨치고있었다. 부지런하게 일한 덕에 최

평감에 밧에도 알찬 열매들이 무르익었다. 그런데 그만 최평감이 다리를 다쳐 누워있다니 리씨는 혼자서 가

을 해들이느라 눈곱물새가 없게 되었다. 이날도 아침 일찍 밧을 지어먹고 서둘러 밧으로 나가던 리씨는 문가에 놓인 무덤 냇가락이 눈에 뜨이자 밧안에 대고 낮은 소리로 평감에게 부탁하였다. 《어보, 수고스러운데로 이 냇가락이나 좀 갈아주세 요.》 그런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밧문이 드르륵 열리며 평감의 잔뜩 찌프린 얼굴이 나타나더니 짜증어린 욕설이 또 터져나왔다. 《뉘, 뉘가 어찌. 아파서 그러는 사람에게 밧을 갈라주?!! 어보, 거 당신의 은은 왜 그리 빨리 무디여지우. 일할줄 모르는 사람 냇 타발만 한다더니 그대 당신을 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뉘요. 가을배추가 노랑게 통이 지고 무우가 팔뚝처럼 자랐어도 평한 김치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주제에 그대 냇 갈 시간이 모자라 나에게 말기려드우?!...》 살을 꼬집어대는듯 한 아픈 욕설이었다. 내가 평한



평양민속공원을 찾은 심영률선생(앞줄 가운데)과 그의 가정



부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리씨의 머리를 찌지던 이미 쏟아지는 물이내 줄 옥이 그칠 때까지 서있을수 밖에 없었다. 《어쩌면 저리도 물인정할가?》 리씨는 생각할수록 평감이 민망스러웠다. 김치를 그처럼 좋아하는 평감을 위해는 코뎌세없는 바쁜 농사철에도 남새를 심어가꾸고 양념 감 환가지라도 더 넣어서 김치를 맛있게 만들어내느라 원심을 쓰는 이 성의를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오늘 아침만 하여도 무우, 배추, 갖을 썰어서 마늘과 참깨, 새우젓을 잘 버무려 익힌 구수한 새끼기와 무우를 가늘게 채쳐서 물을 자박자박하게 두어 익힌 내집한 채김치를 상에 올려놓지 않던가. 먹을 때는 김치맛이 좋은 먹 베풀소리 한마디없이 바닥을 깔고내더니 이제와서 또 새끼집을 걸며 김치타발을 해대는 평감의 고약한 성미가 도저히 리해되지 않았다.